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생스크빌에서 9·11 테러 20주년 전야인 10일(현지시간) 루미나리에 행사가 열렸다(왼쪽). 카불의 공항에 걸린 탈레반 깃발.



/연합뉴스

미국은 9·11 추모, 탈레반은 정부 출범

새 정부 공식 업무 시작 정식 출범식 6개월 뒤

9·11 테러 20주년을 맞아 미국이 여러 곳에서 추모 행사를 연 가운데 이슬람 무장조직 탈레반은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의 대통령궁에 자신들의 깃발을 올리고 정부 출범을 공식적으로 알렸다.

탈레반이 아프간에서 공식적으로 재집권한 것은 꼭 20년 만이다. 탈레반은 1996년부터 아프간 대부분을 통치했지만 9·11 테러 배후로 지목된 알카에다의 수장 오사마 빈라덴에 대한 인도를 거부하

다가 미국과 동맹국의 침공으로 정권에서 밀려났다.

12일(이하 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탈레반은 전날 카불 대통령궁에 자신들의 상징 깃발을 게양했다.

탈레반 과도정부의 물라 모하마드 하산 아룬드 총리 대행이 직접 깃발을 올렸다.

탈레반 문화위원회 말티미디어 국장인 아마둘라 무타키는 “이 게양식은 새 정부 업무의 공식 시작을 나타낸다”고 말했다.

대규모 공식 출범식 대신 약식으로 정부 출범을 선언한 셈이다.

탈레반은 지난 7일 하산 총리 대행 등이 포함된 과도 정부 내각 명단을 발표했다.

33명으로 이뤄진 내각 명단은 모두 탈레반 강경파나 충성파 남성으로 채워졌다.

이와 관련해 11일 외국 외교 사절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출범식이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지만, 탈레반은 지난 10일 이를 부인하며 “출범식은 이미 며칠 전에 취소됐다”고 밝혔다.

대신 탈레반은 6개월 뒤 공식 정부를 출범시킬 것으로 알려졌다.

아프간 국민 다수는 탈레반이 재집권한 후 맞는 9·11 20주년에 착잡한 심정을 드러냈다.

탈레반이 결성된 남부 칸다하르의 주민 하이즈불라라 가디언에 “이날은 아프간

과 아프간인에게 어려운 시기가 시작될 날”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은 자신들이 슈퍼파워라는 것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이곳에 왔으며 9·11은 아프간 점령의 변명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이 탈레반을 몰아낸 후 아프간으로 복귀했던 난민들은 미군 철수와 함께 다시 나라를 떠나고 있다.

지난달 인도로 탈출한 빌랄 니마티는 “미국인이 왔을 때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 처음부터 새 삶을 시작했다”며 이제는 또 다시 가족이 국외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시다 후미오 고노 다로 다카이치 사나에

차기 일본 총리 주자 3명 개헌 의욕

한일 갈등엔 강경 입장 고노, 지지도 가장 높아

일본의 차기 총리를 사실상 결정하는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선언한 주요 정치인들이 모두 개헌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한일 갈등의 재료가 된 역사 문제에서 물러설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관측된다.

12일 산케이신문의 보도에 의하면 고노 다로 행정개혁 담당상, 기시다 후미오 전 자민당 정부조사위원장(정조 회장), 다카이치 사나에 전 총무상 등 자민당 총재 선거 출마를 공언한 3명은 모두 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한일 갈등에 관해서는 3명 모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엇보인다.

기시다는 10일 열린 출마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 등에 대해 “자민당

정권이 계승해 온 역사 인식을 이어가겠다”고 강경 노선을 예고했다.

고노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공식으로 사죄한 ‘고노 담화’를 발표한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장남이기도 하지만 그간의 정치 행적이나 자민당의 우경화 분위기 등에 비춰보면 당장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할 상황은 아니다.

다카이치는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를 반복해 참배했고 젊은 시절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일본의 책임을 부인하는 등 역사 문제에서 극우 성향을 드러내 왔다.

3명의 주자 가운데 일본 유권자의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고노 담당상이다. 니혼게이지신문(닛케이)과 민영방송 TV도쿄가 9·11일 실시한 유권자 상대 전화 여론조사에서 자민당 총재로 가장 어울리는 인물이 누구냐고 물었더니 고노를 택한 응답자가 27%로 가장 많았다.

‘하룻밤 새 모든게 변했다’ ...탈레반, 언론탄압 본색

아프가니스탄에서 언론은 지난 20년간 뚜렷한 변화의 상징 중 하나였다.

미국의 지원 속에 새로 들어선 아프간 정부의 부패를 보도하고 인권 유린을 폭로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

탈레반 치하에서는 몇몇 관영 매체만 존재했던 아프간에서 언론매체는 수백개로 늘었다.

1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 7월에만 텔레비전 방송국이 248개, 라디오라디오 방송국이 438개, 인쇄 매체가 1,669개, 뉴스 통신사가 119개에 달했다.

그러나 아프간이 다시 탈레반 치하로 들어가자 상황은 하룻밤 사이에 완전히 뒤바뀌었다.

대중에게 사랑받던 쇼는 텔레비전에서

사라졌다. 반탈레반 시위는 전파를 타지 못했다.

탈레반이 임명한 경찰관을 사살해 전 세계를 경악케 한 뉴스도 아프간에서 검열 대상이 된 것은 물론이다.

카불에서 여성들의 인권 시위를 취재하다 탈레반에 구금된 언론인은 최소 19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 가운데 2명은 경찰서에서 채찍, 곤봉, 전깃줄로 두들겨 맞았다. 이 소식은 해외로 알려지면서 국제적인 공분을 일으켰다.

아프간언론센터 측은 아프간 언론 기관의 절반 이상이 안전 문제, 불확실한 미래, 재정 문제 때문에 운영을 중단했다고 말했다.

이제 아프간 언론인들은 보도뿐만 아니라 생존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처했다.



시위 취재하다 탈레반에 폭행당한 아프간 기자들. /AFP=연합뉴스

신변 보호를 위해 가명을 사용한 카불의 한 지역방송 앵커 네다는 “자유 미디어의 상황은 매우 위태롭다”면서 “아무

도 탈레반에 그들의 과거 잘못과 잔혹행위에 감히 물어볼 수 없다”고 말했다.

중국 군사 무인기 사용 증가 인접국 골치...역내 안정 위협

중국의 군사 무인기(드론) 사용이 증가하면서 역내 안정을 해치고 있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SCMP는 지난달 말 일본 인근에서 중국 무인기 3대가 포착됐으며 이에 일본군이 전투기를 출격시켜 이들의 활동을 조사했다고 전했다.

신문은 중국의 대잠수함 초계기 Y-8Q와 전자 정보 정찰기 Y9JB가 해당 무인기와 함께 포착됐다고 일본 관리를 인용해 부연했다. 또한 일본 정부가 일본 영해에 대한 감시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안경비대에 무인기를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고 아시아신문을 인용해 전했다.

신문은 “중국의 무인기 역량 증대와 갈수록 정교해지는 군사용 무인기가 인접국에 골칫거리가 되고 있으며 역내 안정을 위협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일본도 무인기 개발과 배치에 집중하면서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 일본의 영유권 분쟁, 미일 군사동맹으로 이미 압박을 받고 있는 미중일 관계에 불확실성이 더해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 싱크탱크 랜드의 티모시 히스 선임 연구원은 중국이 무인기의 유연성과 저위험, 정치·군사적 이득을 고려해 향후 더 많은 무인기를 배치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SCMP에 “무인기는 특히 인민해방군 조종사가 대만과 일본 인근의 분쟁 영공이나 남중국해 등 작전하다 사망할 경우 위기가 초래될 수 있는 지역에서 유용하다”고 말했다.



(주) 금호주택

광주광역시 서구 경열로 17번길 9 거승빌딩
Tel. 062) 382-8879

가족회사 (주)송도건설 / (주)금호에너지 / (주)송도 / (유)송산

함께 여는 행복한 세상!
(주)금호주택이 더 큰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임대문의 062) 382-8879

광주사업지

- 동 구 | 지산동, 소태동
- 서 구 | 금호동, 풍암동, 치평동, 농성동
- 남 구 | 주월동
- 북 구 | 신용동, 연제동, 운암동
- 광산구 | 수완동, 신창동, 운남동, 월계동, 산월동, 소촌동, 송정동, 도산동

전국사업지

- 서울특별시 | 잠실동
- 부산광역시 | 광안동
- 제주특별자치도 | 노형동
- 경기도 안성시 | 중리동
- 전남 목포시 | 옥암동
- 전남 영암군 | 삼호읍
- 전남 화순군 | 화순읍
- 전남 담양군 | 대전면
- 전북 완주군 | 이서면